

**베드로전서 4장 1-19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1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2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3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 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9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10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3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8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 4장 1절은, 내용적으로 3장 18절 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죄와 인연을 끊는다고 한 것은, 고난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 2절과 연결이 되어서, 삶의 우선 순위가 바로 잡혀서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2, 3절에 나오는 '이제부터', '지난 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2절처럼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3절에 나오는 방탕, 정욕, 술 취함과 환락, 연회, 우상숭배이고 4절에서는 방종에 빠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 6절에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성경 교사를 통해 들어보세요)
- 7절은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를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들이 7 절에서 11 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관리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 11 절은 10 절에서 언급한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를 말과 봉사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12 장 6-8 절, 고린도전서 12 장 8-10 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가진 은사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0 절 말씀처럼 은사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2 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13 절), 그리스도의 이름 (14 절), 그리스도인으로서 (16 절) 같은 표현들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산상수훈 중에, 칠복 중의 하나인 마태복음 5 장 11 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 15 절에서 살인, 도둑질, 악을 행하는 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을 행한 결과로 생기는 고난을, 앞서 언급한 고난의 의미와 대조가 되도록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16 절의 '그리스도인' 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1 장 25 절), 아그립바 왕이 사용한 기록도 사도행전 26 장 28 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라는 의미이므로 그리스도인이 그 호칭에 걸맞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 17 절의 '하나님의 집' 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심판이란 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고자 허락하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 죄를 멀리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8 절에서 '겨우' 라는 말은 어렵게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케 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9 절의 '조물주'는 '창조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조물주는 뭔가를 만든 사람이란 의미이지만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Creator 라고 적습니다. 그냥 뭔가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19 절은 고난을 극복하는 기본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